

北韓의 考古學*

——특히 都宥浩의 研究를 中心으로——

李 光 麟

- | | |
|-----------------|-------------------------|
| I. 序言 | IV. 『조선 원시 고고학』의 刊行과 이에 |
| II. 考古學界에서의 활동 | 대한 批判 |
| III. 古朝鮮에 대한 見解 | V. 結語 |

I. 序 言

한국인으로 考古學이란 學問을 처음 전공한 사람은 都宥浩(1905~?)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1935년 「오스트리아」 「빈」(Wien) 대학에서 考古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39년까지 4년간 同大學 先史學研究所에서 연구하였으며, 1939년 귀국한 뒤 다시 日本 東京으로 건너가 考古學 관계 獨逸語 서적 번역에 從事하였다.

이처럼 考古學을 전공한 그는 1946년 10월 越北, 北韓의 考古學界를 위해 많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여 큰 成果를 거두었다. 따라서 北韓 考古學의 발달을 살림에 있어서는 누구나 都宥浩의 연구업적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本稿는 都宥浩가 어떤 研究를 하였고, 또 그의 研究性向이 어떠한지를 알아 보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研究性向이란 研究觀點이라는 말로 바뀌어도 좋다. 사실 그 性向 때문에 그는 많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지

* 이 研究는 1989年度 文敎部 共産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만, 한편으로 그의 地位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므로 한번 살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II. 考古學界에서의 활동

우선 그의 學歷과 經歷을 간단히 더듬어 보는 것이 좋을 성 싶다. 그는 1905년 5월 29일 咸鏡南道 咸興市 南門里 3區 146番地에서 出生하여 1922년 3월 永生學校(4年制)를 졸업, 그 해 4월 서울의 徽文高等普通學校 5학년에 編入하여, 다음 해 3월 졸업하였다. 그리고 1924년 4월 京城高等商業學校(오늘의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前身)에 入學, 1929년 3월 졸업하자 中國에 건너가 燕京大學 文學院에 籍을 두었다. 이곳에 1년간 다닌 뒤인 1930년 유럽으로 가서 1931년 10월 獨逸의 「프랑크푸르트」 대학(Frankfurt am Main)에 入學하였으며, 1933년에는 「오스트리아」 「원」 대학 哲學部 史學科로 轉學하였다. 이어 1935년 6월 考古學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同大學 先史研究所에 들어가 1939년까지 4년간 考古學과 民俗學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10년간의 外國유학과 研究生活를 청산하고 1939년 12월 귀국하였으나 日帝의 彈壓으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1942년 3월 日本에 건너가 「원」대학의 先輩요 民族學者인 「오가」(岡 正雄)의 알선으로 「원」대학 교수 「멘긴」(O. Menghin)의 『石器時代の 世界史』(Weltgeschichte der Steinzeit, Wien, 1931)를 日語로 번역하는 일에 從事하였다.¹⁾

그러나 이 生活도 오래 계속할 수 없었다. 第2次大戰 末期라서 東京生活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945년 2월 故鄉으로 돌아가 興南肥

1) 岡 正雄·江上波夫·八幡一郎·石田英一郎 共著『民族의 起源』(平凡社, 1958)에 收錄되어 있는 岡 正雄의 「25年 뒤」에를 참조할 것. 『石器時代の 世界史』는 聖紀書房이란 出版社에서 1943년 上卷만 刊行되었다. 譯者는 岡 正雄로 되어 있으나 譯者序에 依하면 都君(도유호)의 協力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料工場에 就職하였다. 곧 解放이 됨에 咸興市 圖書館長과 咸興醫科大學 講師에 任命되었으나 또 다시 이 生活에 滿足을 느끼지 못하고 越南하였다. 그리고 京城大學 出身으로 한때 獨逸에 유학한 바 있었던 南勞黨의 巨物 李康國의 앞선으로 1946년 4월 共產黨에 入黨, 肅山黨系列의 人民黨外交部長, 科學者同盟委員長 職을 맡았으며, 그 해 9월 美軍政廳으로부터 逮捕令이 내려지자 10월 家族과 함께 越北, 金日成綜合大學 教授가 되었다.²⁾

도유호의 성격은 明朗하고 進步의이었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³⁾ 元來는 共產主義와 거리가 먼 民族主義者였던 것 같다. 그것은 前述한 바대로 咸興市立 圖書館長 職을 마다하고 越南하였던 것으로서 그렇게 살필 수 있고, 또 親兄 都容浩의 行蹟으로서도 알 수 있다. 都容浩는 解放直後 建國準備委員會 咸鏡南道 支部가 結成됨에 그 委員長에 選出, 共產主義者協議會 側과 함께 朝鮮民族 咸鏡南道 執行委員會를 조직하여, 北朝鮮에 進駐한 소련 第25軍司令官 「치스차코프」(Ivan Chistiakov)大將을 面談하고 咸鏡南道の 行政權을 委員會에 넘겨 달라고 交渉하였다 한다.⁴⁾

도유호는 才士였다. 특히 글을 쓰는데 남다른 才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유럽 유학 길에 오르게 되자 신문사와 잡지사 側으로부터 寄稿를 요청받았다. 그리하여 東亞日報에 1930년 9월 2일에서 10월 5일까지 23회에 걸쳐 「歐洲行—印度洋 건너서」를 썼고, 잡지 『東光』에 여섯 편의 글을 썼다. 그의 글은 모두 長文인데다가 당시의 독일 事情과 그의 유학 生活을 살필 수 있다. 『東光』지에 실린 글의 제목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호(1931년 5월刊)에, 「苦悶의 獨逸에서—타고翁의 訪獨, 美國商品의 洪水, 失業擴大」, 23호(1931년 7월刊) 「獨逸生活斷片—猶太

2) 그의 學歷과 經歷에 대해서는 美國 國立古文書館에 保存되어 있는 「齒獲文書」중 履歷書 참조. 이는 6.25 動亂 때 美軍이 平壤에 進駐하여 壓收한 文書로 도유호가 越北한 직후 作成하여 共產黨에 제출한 것이다.

3) 同上.

4) 和田春樹, 「소련의 朝鮮政策—1948년 8월—10월」, 『社會科學研究』 33卷 4號(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1981년 11월刊.)

人論과 負傷日誌」, 25호(1931년 9월刊) 「獨逸留學日記」, 26호(1931년 10월刊) 「詩人 괴테의 舊家를 찾고—獨逸留學日記」, 27호(1931년 11월刊) 「獨逸大學生の 生活—劍客, 男女裸體生活, 尖端戀愛」, 28호(1931년 12월刊) 「民族問題에 對한 나의 誤謬」이다. 마지막 글은 23호에 쓴 것에 대한 辨明으로 되어 있고, 編輯局長 앞으로 보낸 私信이었다. 그러나 잡지 사 側에서는 重要的 內容의 글이라 생각하여 게재하였던 것 같다. 이 글은 별로 길지 않다.

한편 「오스트리아」 「원」대학으로 옮긴 뒤에는 震檀學會 代表 李丙燾先生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곳 學界의 소식을, 뒤에는 자기의 論文을 보내고 있다. 그의 글을 받자 진단학회에서는 1936년 4월 4일 字로 되어 있는 그의 글을 「學界소식」欄에 소개하였고⁵⁾, 「支那社會史上으로 본 孔子와 老子」라는 논문을 받자 학보 3호(1935년 7월刊)에 獨逸語로 된 글을 게재하였다가 곧 우리말로 번역하여 실었다.⁶⁾

「원」에서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진단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니, 「中國都市文化의 起源」이란 長篇의 논문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학회에서는 즉각 『진단학보』 12권(1940년 9월刊), 13권(1941년 2월刊) 14권(1941년 6월刊)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요세프 헤켈」(Josep Haechel)의 「토텐主義論」(Über Wessen Und Ursprung des Totemismus)을 소개하는 글도 써서 제출하자 12권에 게재하였다. 이것은 「원」에서 1939년 刊行한 「人類學雜誌」(Mitteilungen des Anthropologischem Gerellschaft in Wien)에 실려 있는 글을 소개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中國都市文化의 起源」이란 제목의 논문은 1939년 여름 「원」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다.⁷⁾ 혹 그가 「원」대학에 제출하였던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학회에 보냈던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5) 『震檀學報』 5卷(1936년 7월刊).

6) 同上書 8卷(1937년 11월刊).

7) 同上書 12卷(1940년 9월刊).

이처럼 진단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관계로 1940년 結婚을 할 때에도 학회代表 이병도선생의 主禮下에 式을 거행하였다고 傳한다.⁸⁾

1946년 10월 越北하여 金日成綜合大學에서 考古學의 강의를 맡는 한편 유적 발굴에 힘을 기울였다. 1947년 咸鏡北道 雄基 승평동 貝塚발굴을 비롯하여, 羅津과 平壤 등지에서 古代 및 中世 무덤을 발굴하였다. 1948년에는 北韓의 主要 유적을 조사하고 平壤市 平泉里 옛 건물터의 발굴, 平安南道 江南의 공사장에서 드러난 유적을 정리하였고, 平安北道 「괴현」一帶의 옛 무덤을 발굴하였다.

1949년 黃海道 安岳의 高句麗 무덤 3基를 발굴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화려한 벽화와 아울러 벽화무덤의 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다. 무덤 한쪽 벽에 多壽라는 이름과 그가 죽은 年代가 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年代는 西紀 357년이었다. 또한 이 해에 실시된 咸鏡北道 羅津 草島 유적조사는 한국에서 첫번째 青銅器 유적발굴이었고,⁹⁾ 다음 해, 즉 1950년에 발굴한 平安南道 龍岡郡 海雲面 弓上里 原始유적은 新石器時代 中期, 紀元前 4,000 年代 것이었다. 한국 特有的 褐色刻文土器를 使用하고 農事를 지으면서 居住하였던 유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¹⁰⁾

도유호는 1948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문화유물』에도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지만, 특히 1949년 1월 北韓政權에서 朝鮮歷史編纂委員會를 설치하자 原始史分科委員會의 委員으로 任命되고,¹¹⁾ 同 編纂委員會에서 『歷史諸問題』라는 잡지를 刊行함에 15, 16輯에 「先史學의 唯物史觀的 考察을 위한 몇 개의 基本問題」라는 제목의 長篇 論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韓興洙¹²⁾라는 이가 『歷史諸問題』 2輯에 「原始社會史에 關한 覺書」라는 글을

8) 前 國立博物館長 金載元博士 談. 김박사는 도유호와 절친한 사이였다.

도유호와 같이 고향이 咸興이고 獨逸유학을 한때다가 年齡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유호 결혼식때 들러리를 섰다 한다.

9) 이에 대한 발굴보고서는 北韓에서 刊行된 첫번째 것이었다.

10) 『宮山원지유적발굴 보고서』가 1958년에 두번째로 刊行되었다.

11) 『歷史諸問題』 5輯(1949년 刊) 所收 內閣決定 제11호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 참조.

써서 도유호가 공부한 「오스트리아」 「원」 대학은 文化圈說 등을 제창한 反動的인 學派에 屬한다고 批判한 데에 대해 反駁한 논문이었다. 그의 주장의 要點은 文化圈說이 그릇된 主張이라 해도 「원」大學의 교수들이 주장한 文化比較의 方法論까지 反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¹³⁾

1952년 10월 北韓政權에서 科學院을 설립하자 도유호는 그 산하에 있는 物質文化史研究所의 所長이 되었다. 이 研究所는 곧 考古學 및 民俗學 研究所로 改稱되었고, 그 밑에 考古學, 民俗學, 美術史 研究室을 開設하였다. 그런데 科學院 산하 역사연구소에서 『역사과학』이란 학술잡지를 刊行함에 창간호부터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를테면, 1955년 1호 창간호에, 「朝鮮石器時代 事象에서 判明된 몇 가지 事實에 대하여」를, 1956년 3호 討論이란 項目에, 「朝鮮 歷史上에는 果然 奴隸制社會가 없었는가? 金洸鎭 同志의 否定論에 관련하여」를 썼다. 後者는 社會經濟史學者 金광진이 『역사과학』 1955년 8호 및 9호에다가 유럽社會에 存在하였던 奴隸制度가 조선에는 없었다고 主張한 데에 대해 異議를 제기한 것이었다.¹⁴⁾ 奴隸制度 문제는 1956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학자들간에 논

12) 韓興洙는 유럽으로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진단학보』 3권(1935년 7월 刊)에 「朝鮮의 巨石文化研究」를, 同誌 4권(1936년 4월 刊)에 「朝鮮石器文化概說」을 발표하였다. 이어 1936년 「폴란드」(Poland)의 「와루소」(Warsow)를 거쳐 「오스트리아」 「원」 대학에 유학하였다. 따라서 「원」 학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학 중에는 「진단학회」에 자주 연락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진단학보』 6권(1936년 11월 刊) 彙報에 실려 있는 互通의 書信으로 알 수 있다. 그는 해방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대학에 있었고, 도유호의 알선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직접 복한에 갔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載元박사의 談話 參照. 한편 1949년 北韓에 朝鮮物質文化遺物調査保存會가 설치되자 그 委員長이 되어 古代遺物展示會를 개최하였으니 林光澈, 『朝鮮歷史讀本』, (白揚社, 東京, 1950)에 들어 있는 平野義太郎의 序文을 參照할 것.

13) 韓興洙에 대한 도유호의 批判이 나온 뒤 한홍수는 속칭되었다 한다. 김재원박사는 이 사실을 한국動亂 前 平壤博物館 職員으로 있었던 채병서로부터 들었다 한다.

14) 도유호의 批判에 대해 金광진은 「三國時代의 社會·經濟構成에 관한 若干의 問題에 대하여」라는 論을 『역사과학』 1956년 5호와 6호에 게재하여 反論을 件 바 있다.

란이 벌어졌으나,¹⁵⁾ 1960년에 열린 「우리나라에 존재한 노예소유자 사회 시기 문제에 관한 과학토론회」¹⁶⁾에서 結論이 내려졌던 것 같다.¹⁷⁾

사실 이 문제는 三國時代의 社會·經濟 構成에 關한 것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1956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의 내용을 1958년 3월 역사연구소에서 책자로 펴냈다. 물론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논문만을 제출한 사람도 있었다. 논문의 수는 13개였다. 책 제목을 『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이라 하였다.

도유호는 「삼국시대는 봉건시대가 아니다」라는 글을 寄稿하였다. 三國時代는 封建時代가 아니라 奴隸制 時代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主張이었다. 그러나 北韓學界에서 뒤에 古朝鮮은 奴隸制 시대였으나 三國時代는 封建時代라고 規定함에 그의主張은 後退하게 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광진이 한국에는 奴隸制 社會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그는 있었다고 맞섰고, 그것이 北韓學界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므로 그의 見解의 半은 진진 셈이었다.

1954년 이후 도유호는 발굴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代表的인 것으로서 1954년에서 55년에 걸쳐 진행한 會寧 五洞, 1955년의 肅州郡 金灘里, 江南郡 猿岩里, 1956년 咸鏡南道 永興郡 웅강리 土城, 黃海里 沙里院 上매리, 1957년 黃海道 鳳山郡 智塔里, 1959년의 江界市 公實里, 1963년의 平安北道 義州 美松里 유적 발굴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발굴한 대부분의 유적은 靑銅器 유물이 나온 곳이었다. 그는 발해만의 建平縣과 旅大(旅順과 大連)지구에서 유행하던 琵琶型 銅劍이 韓半島에 퍼졌고 뒤에 韓國化되어 細型銅劍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結局 그의 주장은 新石器 段階에 있었던 한국이 戰國時代 中國에서의 移住民에 依해 靑銅器時代를 거치지 않고 中國의 影響下에 數百年間의 金石併用期를 거쳐 鐵器時代로 넘

15) 同上書 1959년 6호.

16) 同上書 1960년 5호.

17) 그 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論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측해 보았다.

어 갔다는 日帝時代 日本 考古學者들의 說을 分쇄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1957년 科學院 산하 考古學 및 民俗學研究所에서는 『문화유산』이란 잡지를 刊行하기 시작하였다. 2개월에 한권씩, 그러니까 1년에 6권을 刊行하였다. 발굴을 활발히 진행하게 되면서 보고사항도 많았던 것이므로 잡지를 刊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는 도유호가 中心 역할을 하였으니, 이 잡지의 책임편집위원이 되었던 것으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의 밑에 김용준, 김무삼, 김일출, 리여성, 황철산, 황욱이 편집위원으로 任命되었다. 金瑑俊, 金一出, 李如星은 한국動亂을 前後하여 越北한 사람으로 김용준은 美術史學者, 김일출은 東洋史學者, 리여성은 服飾史學者였다. 이 잡지에 도유호는 많은 논문을 寄稿하였다. 우선 創刊號 첫 머리에 「민족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 과업」이란 제목으로 考古學, 民俗學, 美術史 研究室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이 창간호에, 「安岳에서 발견된 高句麗 古墳」이란 제목의 논문도 발표하였다.

1957년 5호에 실린 「10월혁명과 조선고고학의 발전」이란 글은 執筆者의 이름이 써어져 있지 않으나 도유호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同 6호에 黃海道 沙里院 智塔里 出土의 유물을 갖고 조선 巨石文化의 絕對年代를 推定하였다. 그것은 智塔里에서 木炭을 적지 않게 발굴해냄으로써 방사능 방법에 의한 年代測定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문화유산』 1958년 3호에 「조선 원시문화의 연대 추정을 위한 시도」를 발표하여, 原始文化에 대한 時代區分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는 거석 문화 시대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서기전 7~3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물론, 남부 조선의 거석 문화는 좀 더 계속하여 철기 시대에도 존속하였다고 보인다. 조선의 철기 시대는 북중국 제통의 인간의 래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서기전 3세기에 시작

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서 조선 시대의 조선의 소위 동이(東夷)는 벌써 철기 시대에 들어 섰던 것이다.

지담리 제 1 및 제 2 지구의 고대층은 꽤 복잡하다. 우리가 제 1 지구로서 태한 《토성》을 대방군 치지(帶方郡治址)라고 본 일제 어용 학자들의 견해에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아직 거기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 2 지구의 고대층에 관하여도 아직 별반 연구를 진행하여 본 일이 없다. 오직 그것이 북부 중국, 내몽고, 료동 동지와 관련이 있으며, 또 그 문화 구성이 복잡하다는 것만은 엿보인다. 그리고, 전국 시대 말이나 전한(前漢)초에서 진위(晉魏)시대까지의 것이 보임을 다소 엿볼 수 있다.

라고 쓰고 있다. 『문화유산』 1959년 2호에 게재한 「조선 거석문화 연구」는 1957년 봄 黃海道 沙里院 附近 智塔里 유적 발굴에서 角形土器 층을 정리하고, 또 그 附近에 흩어진 허다한 支石墓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巨石文化의 正體를 알게 되어 쓴 것이다. 요컨대, 支石墓뿐만 아니라, 石床墳이나 角形土器 모두 靑銅器時代의 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支石墓 등의 巨石文化는 멀리 「에집트」(에굽)에서 發生한 것 같고, 또 한국에는 東南亞細亞에서 黃海道 長山串에 이르고, 그 곳에서 黃海道·平安道 등 各處에 퍼진 것이며 한편 積石塚이나 石床墳 등은 北方에서 전파된 것이지만 巨石文化와 같이 存在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문화유산』 1959년 4호에는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유래와 서역문화의 영향」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최희국이란 고고학자가 『문화유산』 1959년 3호에 「고구려석실봉토분의 기원에 관하여」란 논문을 써서 발표한 데에 대해 고구려의 石室·封土墳을 西域과 관련시키지 않는 것은 틀렸다고 하고 자기의 주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고구려 고분의 고임천장은 그리스 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던 安息國(지금의 이란 고원에서 메소포타미아 부근)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騎馬狩獵圖의 모티브조차 西아시아의 영향이라고 역설하고 그러한 문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가 多種族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국가의 성격까지 논하였다.

또 『문화유산』 1959년 6호에는 「재령과 단천 지방에서 나온 몇 개의 유물에 관하여」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문화유산』 1959년 2호에 실린 「조선거석문화」 발표 뒤에 알게된 지식을 갖고 쓴 것이었다. 우선 고인들이 兩江道, 鴨綠江 상류 지방인 분수령 밑에서도 발견되고, 또 豆滿江 유역인 穆城 地方에서도 발견되나 咸鏡北道 地方은 巨石文化의 흔적이 희박하다고論한 다음 1958~59년에 걸쳐 黃海道 載寧 新환표와 咸鏡道 端川에서 발견된 자귀와 石祖는 黑龍江 下流 地域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며, 靑銅器時代의 유물이라 하였다. 이 유물을 가지고來住한 種族이 먼저 東海岸 地帶에 들어왔고 그 一部가 臨津江 줄기를 거쳐 西海岸 地帶로 進出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그 유물은 巨石文化와 대략 같은 시대의 것이지만 문제는 巨石文化가 한국 全地域을 휩쓸던 당시 巨石文化와는 판이하게 다른 문화 전통을 가진 소수 종족이 거석문화적인 종족들 사이에 끼여 살았을 것이라는 見解를 내세웠다.

이 해, 즉 1959년 考古學 및 民俗學研究所에서는 上·下 2卷으로 된 『조선고고학개론』을 刊行키로 決定하자 도유호는 그 중에서 靑銅器時代를 담당하였다.¹⁸⁾ 1959년에는 『조선 원시유적 지명표』, 1960년에는 『조선고고학 지도』를 刊行하였다고 하는데¹⁹⁾ 아마 여기에도 도유호가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어 『문화유산』 1960년 1호에 「초도유적의 주인공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1949년 咸鏡北道 羅津 草島유적을 발굴하고, 1955년에 『라진 초도 원시유적발굴 보고서』를 世上에 公表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초도 유적을 新石器時代 最末期로 처리한 바 있었으나 뒤에 入手한 소련 沿海州의 貝塚발굴 보고서를 접하게 됨에 草島가 沿海州의 유적과 通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련 학자들은 沿海州의 유적을 남긴 사람들이 挹婁族이고 이 族屬은 沿海州에서 咸鏡北道 海岸地帶에 걸쳐 널리

18) 『문화유산』 1959년 2호 所收 「조선거석문화연구」 참조.

19) 同上書 1959년 5호에 실려있는 「근간안내」와 1960년 4호 附告.

피져 살고 있었고, 또 그 文化는 靑銅器時代에 屬한다는 主張을 내세웠던 것이므로 도유호는 그 主張을 받아들여 앞서 刊行한 보고서의 內容을 고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도유호도 草島 유적이 靑銅文化를 가졌던 挾婁族이 남긴 것으로 修正하였던 것이다.

1960년 8월 소련의 首都「모스크」에서 第25次「동양학자대회」(Congress of Orientalists)가 열렸다. 도유호는 金錫亨 등과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 제목은 「조선의 金屬文化」였다.²⁰⁾ 1958년에 「조선에서의 금속문화 기원에 관한 토론회」도 열린 바 있지만,²¹⁾ 그동안 많은 靑銅器 유적을 발굴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발표하였던 것이었다.

『문화유산』 1962년 3호와 4호에는 고고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글을 썼다. 먼저 3호에는 「강좌」라는 이름 하에 「고고학이란 어떠한 과학이며, 역사연구에는 왜 고고학이 필요한가」를, 4호에는 「빙하기란 무엇인가」를 발표하였다. 특히 前者인 3호의 글에서는 아직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구석기 시대의 인간이 한국에도 살았다는 것을 隣近地域의 形便에서 알 수 있다고 하여, 한국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 出土 可能性을 시사하였다. 또 『문화유산』 1962년 5호에 도유호는 「과학원 창립이후 고고학과 민속학의 발전」이란 글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1956년에서 1961년까지 고고학과 민속학 관계 책을 해마다 3권씩, 그리하여 20권을 刊行하였다고 자랑하면서 그 內譯으로 『유적발굴 보고』 8권, 『고고학 자료집』 2권, 『민속학 연구총서』 5권을 들고 있다. 1962년에도 『고구려벽화무늬』, 『조선의 단청무늬』, 『고구려 기와무늬』 3권도 刊行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책 중에는 도유호가 쓴 것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 즉 1963년 4월 10일에서 16일까지 豆滿江 河口에서 10km 떨어진 咸鏡北道 雄基郡 蘆西面 屈浦里 西浦港 貝塚 유적에서 구석기 시

20) 『역사과학』 1960년 6호에 실려 있는 「학제소식」.

21) 『문화유산』 1958년 2호.

대의 유물을 발굴하였다. 본시 그 地方 農民이 家畜 飼料로 쓰기 위해 貝塚를 파내려 가다가 土器 破片과 石器를 얻었다는 보고에 撥함으로써 도유호 등 考古學者가 1960년 여름 以來 現場에 가서 발굴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의 여러 문화층이 복잡하게 깔려 있었고, 그것은 대체로 중국 東北地方 및 소련 沿海州地方과 관계있는 유물들이었다. 그런데 1962년 가을 발굴을 하면서 신석기층 밑에서 大理石製 밀개 한개를 얻게 되고 그것이 소련 沿海州에서 出土한 구석기시대 유물과 비슷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4월부터 本格的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그 結果 角頁岩, 石英岩, 조정花崗岩 등으로 만든 구석기시대의 加工品을 얻게 되었다.

이윽고 그 해 7월에서 8월 사이 第2次 발굴을 실시하여 구석기 문화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도유호는 屈浦文化(Coulporien) I기(前期) II기(後期)로 分類하여 學界에 보고함으로써 世上에 알려지게 되었다. I기 것은 舊石器時代 中期 約10萬년전 유물, II기 것은 約4~3萬년의 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1964년 6월에서 7월까지 第3次 발굴에서는 西浦港 유적 西北쪽, 즉 湖水 건너편인 駙浦里에서도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석기를 얻게 됨으로써,²²⁾ 그 一帶에는 구석기유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해, 즉 1963년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에서는 『고고민속』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刊行한 『문화유산』은 자연히 廢刊되었다. 발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잡지 명칭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고민속』은 1년에 4卷씩 刊行되었다.

『고고민속』 1964년 1호에 발표한 「1964년도 고고학 및 민속학 분야의 중심과업」에서 장차 屈浦에 대해 大的으로 발굴·조사하여 그 正體를 좀 더 具體的으로 밝히겠다고 하였다. 何如든 屈浦 구석기 유적의 발견은 한국 고고학계의 획기적인 事件이었다. 그리하여 도유호는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즉 『고고민속』 1964년 2호에 「조선의 구석기 시대 문

22) 『고고민속』 1965년 1호 「학계소식」.

화인 굴포 문화에 관하여」, 同誌 4 호에 김용남과 함께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와 이른 신석기 시대의 년대론에 대하여」, 그리고 『고고민속』 1965 년 1 호에 역시 김용남과 함께 「굴포문화에 관한 그 후 소식」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도유호 등에 依한 屈浦유적에 대한 조사는 구석기시대 연구에 있어서 北韓 考古學界에 크나큰 자극을 주었다. 그리하여 많은 유적을 찾고 연구하게 되었다. 그 한 두가지의 實例를 든다면, 1966 년에서 68 년에 걸쳐 平壤市 祥原郡 黑隅里(거문물) 石灰岩 洞窟 유적조사에서 주먹 鎚形石器, 梯形石器, 尖頭器와 29 種의 脊椎動物의 化石을 발견하였다. 또 이 洞窟에는 코끼리, 하이에나, 羊 등의 大型動物과 아울러 濕地에서 사는 들쥐 등의 小動物이 있었고, 全體의 約 70% 가 死滅種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유적은 地質學的으로 第4期 更新世 中期에 形成된 60~40 萬년 전의 것이었다.

또 1972 년에서 73 년에 걸쳐 平安南道 德川郡 勝利山 洞窟이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古人段階의 德川人 人骨과 新人段階의 勝利山人 人骨을 발견하였는데, 前者는 約 10 萬년 전의 것, 後者는 約 4~3 萬년 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유적은 구석기시대 中期와 後期の 것으로 動物化石도 多數 발견되었다.²³⁾

『고고민속』 1965 년 1 호에 「해방후 발굴년표」가 들어 있다. 1949 년 咸鏡北道 羅津 草島부터 1964 년 黃海道 송림시 석탄리 유적까지 111 種의 발굴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시대의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도유호에 依해 발굴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는 『고고민속』 1965 년 3 호에 「평천리에서 나온 고구려 부처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부처는 南韓에 있기 때문에 그의 논문은 「永康」이라는 年號가 들어 있는 光背의 銘文을 해석한 것이었다. 光背는 平壤博

23) 朴時亨, 「朝鮮史研究에서 達成한 成果에 대하여」, 『東아시아古代文化』 27 號 (東아시아古代文化 編輯部, 東京, 1981 년 봄 刊).

物館에 있다.

그런데 도유호는 위의 글을 발표한 뒤로 北韓의 考古學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理由는那邊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혹 다음에 설명하려는 「古朝鮮」에 대한 그의 主張이 北韓學界에서 내세우는 見解와 相衝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Ⅲ. 古朝鮮에 대한 見解

도유호는 考古學者였다. 따라서 유물이나 유적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든 自信있게 主張할 수 없었다.

그런데 韓國動亂 前부터 北韓의 學者 중에 古朝鮮의 中心地를 滿洲 遼西地方에 있었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鄭玄같은 이가 그 部類에 들어 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漢四郡考』라는 論文을 『歷史諸問題』 17輯(1950년 4월刊)에 게재하여 古朝鮮은 元來 中國 河北省 一帶에 있었고 뒤에 滿洲 遼西地方으로 옮겼으며, 樂浪郡은 修佳江 以西 遼東半島 北部에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만 해도 도유호는 古朝鮮에 대해 뚜렷한 見解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것은 前掲 『歷史諸問題』 15輯(1950년 2월刊)에 게재한 「先史學的 唯物史觀的 考察을 爲한 몇 개의 基本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樂浪土器 中에서 어떤 者와 高句麗土器 中의 어떤 者는 가장 近似하여 그것을 單純히 發展過程上的 差異로만 보기 쉬운 것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좀 더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하나는 漢代的 中國人이 쓰던 것이요 하나는 高句麗人이 쓰던 것이다.

그러니까 樂浪土器 中에는 漢人이 쓰던 것도 있고 高句麗人이 쓰던 것도 있어서 신중히 다뤄야 된다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있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自己의 생각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韓國動亂 뒤 北韓學界에서 古朝鮮이 滿洲에 있었다는 主張을 내세울뿐만 아니라, 平壤에 中心地가 있었다는 見解를 마구 批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도유호 등은 平壤附近에 散在해 있는 中國 漢代유물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몰랐다. 그런데 점점 批判의 화살이 自己들에게 쏘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1957년 1호에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 과업」이란 글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계(漢系) 유적, 유물과 관련하여 한사군(漢四郡)의 위치 문제가 지금 발생거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우리는 덮어 놓고 《정치성》만 운운하여 가지고 《반동 이론》이라는 바가지를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는 식의 논조는 삼가야 할 것이다. 가령 한 때는 한사군의 영역이 조선의 서북방에까지 미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수치로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문제는 오직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적인 견지에 튼튼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생거리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론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1956년 8월에 열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과학 일군들은 더욱 대담하게 자기의 견해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자유로운 공개적 토론과 진지한 논쟁을 통하여 과학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또 같은 글에서 그는

이 방법론 문제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교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옳은 수립을 위하여 우리는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덮어 놓고 《반동 학설》이라는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가령 레하면 종족 이동론이 암만 《반동 이론》이며 문화 교류론이 암만 《반동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동과 교류의 사실을 무시하고는 민속학 분야에서 문제의 해결은 초보적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그러한 이동과 교류의 사실을 넘두에 두고 분석하며 비교하여 종합하는 방법을 취하는데서 그냥 덮어 놓고 《발전 발전》만 부르짖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며 효과 있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보면 古朝鮮이나 漢四郡 문제로 도유호 등은 反動학설을 내세웠다는 것으로 심한 곤욕을 치루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런데 古朝鮮 문제는 우리나라에 存在하였던 奴隸所有者 社會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1959년 11월과 12월, 그리고 1960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가 열렸다.²⁴⁾ 그리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國家, 즉 古朝鮮은 封建國家가 아니고 奴隸所有者 國家였다는 結論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土臺로 하여 김석형과 정찬영이 『역사과학』 1960년 2호 부록에 「우리나라 노예 소유자 사회의 특성과 봉건 사회의 성립」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이들은

고조선 국가는 초기에 주로 만리 장성 이북으로부터 료하 류역에 걸쳐서 존재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서는 료하류역으로부터 조선 반도 서북부에 걸쳐서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中略) 조선 반도 내에서 이 시기 즉 고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문화 유적으로서 토광묘 계통의 문화가 있는 바 그곳에서 출토한 유물로서 세형 동검(細形 銅劍), 협봉 동모(狹鋒 銅鋒), 거여구류(車輿具類) 등을 들 수 있다. ...(中略) 우리는 불충분한 문헌 자료들과 대조하여 창건의 년대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대체로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에는 이미 계급 국가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中略) 고조선에서는 노예 소유자적 귀족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을 일삼았고 아직도 원시 공동체였던 린근 종족들을 정복하여 이를 노예적으로 착취하였다. ...(下略)

고 썼다.

文獻學者들이 古朝鮮의 中心地를 遼西로 잡는 데에 대해 도유호는 마땅치 않게 여겼다. 遼西地方에서는 古朝鮮 관계유물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므로 1960년 4월 1일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주최로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관한 과학토론회」를 열게 되자 그 기관의 所長으로 있었던 그는 제일 먼저 발표를 하였다. 이때 발표한 내용

24) 『역사과학』 1960년 1호에 실려 있는 토론회 記事와 同誌 1961년 3호에 게재된 정찬영·김세익의 「조선 노예 소유자 사회의 존재시기 문제에 대한 토론 개요」와 김석형의 「조선 고대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이론상 문제」 참조.

이 『문화유산』 1960년 3호에 실려 있으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上略) 우리 나라 청동기 시대의 개시는 1천 년대 초, 혹은 그보다 일찍이 2천 년대 후반기까지도 올라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되는 종족들 가운데에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청동기문화에 이르기까지 강한 전통이 있었고 철기 문화는 중국 중원의 문화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中略) 이어서 그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로서 거석문화를 들었다. 그는 이 문화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였고 특히 팽이 그릇(각형 토기)관계의 유적에 대하여 세밀히 말하였다. 그는 청동기시대 우리 나라 종족들이 대단히 다양하였으며 그 인종적 계통도 여러 갈래라고 하였다. 레컨대 압록강 류역에는 한 개 공통적인 문화를 가진 종족들이 살았고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방에는 또 다른 종족들이, 함경남도 단천 지방에도 또 다른 종족들이 살았다. 이들은 지어 그 인종까지도 서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中略) 우리 나라의 토광무덤은 중국 계통의 것이나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는 벌써 고유한 특성을 띄게 되었으며 그 밖에 또 돌무덤(石墓) 계통의 만 문화가 들어왔음을 말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고조선은 이미 국가였다. 그러나 그 국가 형성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 만일 3세기 이전에 국가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선 반도 내에서가 아니라 중국 동부 지방에 있을 것인바 이는 조선사의 취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고조선 국가의 영역이 오늘날의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일대이며 그 북계를 이룬 패수(溍水)는 청천강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도유호는 古朝鮮의 中心地는 유물의 出土로 보아 平壤에 있었다는 見解를 堅持하였던 셈이었다.

그 뒤 中央歷史博物館館長 황옥은

고조선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압록강 이남만을 생각해야 된다고 할 근거는 없다. 고조선이 그 이전에 룡하류역에 있었다고 하니 그 지방의 유물을 연구해야 한다. 민족이 이동하면 명칭도 이동하는바 조선이란 민족의 이름도 같은 경로를 밟았다. …(下略)

고 하여, 古朝鮮은 滿洲 遼河 流域 地方으로 보려는 見解를 펴려하였다. 이어 考古學研究室 助手 전주농, 中央歷史博物館 백연행, 考古學研究室 研

兇士 정찬영, 김용간 등이 토론을 벌였다. 대체로 고고학 연구실소속 사람들은 도유호의 설을 支持하는 주장을 하였다.²⁵⁾

學問의으로 自己의 說을 굽히지 않았던 도유호는 여기에 挫折하지 않고 논문을 직접 써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문화유산』과 『역사과학』에 論文을 발표하였다. 우선 『문화유산』 1960년 4호에 실린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은 「문제의 출발」, 「고대이전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유물을 통하여 본 고조선 주민 구성의 다양성」, 「고조선 국가 출현의 시기와 그 령역」, 「고조선과 남녘 땅」 등 5장으로 나뉘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역사과학』 1961년 5호에 실린 「고조선문화에 대하여」에서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上略) 우리가 고조선 시대의 유물을 확인한 것은 토광무덤에서였다. …(中略) 고조선 유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그 좁은 罎단점(세형동점)이다. 그런데 이 단점형의 형성 과정은 고조선 문화 형성의 일면을 잘 표시하는 것이다. 이 단점은 소위 평형 동점과 석암리형의 좁은 罎단점과의 중간형 내지는 혼합형이다. 대체로 평형 동점이 석암리형의 단점식으로 좁아진 것이다. …(中略) 일제 어용학자들은 평양 지방에서 악랑 시대의 유물이 알려진 이래, 거기에 관하여 評장이 떠들어대었다. 그리하여 불원에 조선 고고학이 악랑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변하고 말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소위 악랑 문화라고 하던 것 중에는 고조선 관제의 것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소위 악랑 문화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고고학에서 악랑이 차지하는 자리가 일제 어용학자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 고고학 전체로서 볼 때 악랑이 차지하는 자리는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소위 악랑 문화 중에서 고조선 관제의 것을 빼 놓으니 더구나 그 비중이 적어진다. …(中略)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5) 『문화유산』 1960년 3호에 실린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 토론회」와 同誌 1960년 2호에 실린 전주농의 「고조선문화에 관하여—토광무덤 年代의 고찰을 중심으로」, 그리고 同誌 1960년 3호에 실린 정찬영의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참조. 정찬영은 위의 논문에서 溟水를 大同江, 王險城을 平壤으로 보고 있어서 도유호의 설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조선 문화의 중심은 역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에 있었다. 필자의 생각 같아서는 고조선 국가의 기본 영역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지방이었으며 함경남도 지방도 한 때 그 영역에 속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고조선의 영역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며, 우리 고고학도 사이에서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 영역을 고증하는 데에서는 한무제 침공 당시의 패수(溟水)가 지금의 어느 강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패수의 위치에 관하여도 아직 의견이 구구하다. 압록강-패수설이 역시 제일 유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필자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대학자 한 백겸(韓百謙)의 청천강-패수설을 따르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청천강 이북에서는 고조선 유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 무제의 정벌군의 좌장군이 패수에서 고조선 군대인 패수장군을 무찌르고(이여전진하여 왕검성 하에 이르렀다.)<乃前至城下>고 한 사기(史記)의 기록은 패수와 왕검성과의 거리가 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하간 영역 문제는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結局 도유호는 古朝鮮의 中心地를 平壤, 溟水를 淸川江, 王險城을 平壤에 比定하는 說을 계속 主張하였다.

위의 引用文 중에서 「악랑」이란 락랑(樂浪)을 가리킨다. 樂을 「악」이라 고도 읽을 수 있으니 문제가 별로 없다. 사실을 말하면 일찌기 李丙燕도 「악랑」이라고 읽었고²⁶⁾ 溟水를 淸川江, 王險城을 平壤으로 보았다.²⁷⁾ 따라서 도유호는 철저히 이병도의 說을 따르고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었다.

위에서 도유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古朝鮮의 領域 문제는 아직 學界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과학원 주최로 역사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전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중앙당 학교 교수들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편 토론을 벌였다. 1961년 6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7회에 걸쳐 진행되어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 종족 구성과 시대 구분, 생산력과 국가 형성 등의 문제가 토론되었다.²⁸⁾ 특히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의 토

26) 「三韓問題의 新考察」, 『진단학보』 7권(1937년 3월 刊).

27) 「溟水考」, 『靑丘學叢』, 13號(1933년 8월 刊).

28) 『역사과학』 1961년 5, 6호에 실려 있는 토론 개요 참조.

론회에서 립전상, 리상호, 리필근, 백남운 등 文獻史家 들이 古朝鮮은 만주 遼河에 있었다고 主張한 데에 대해 도유호, 황철산, 정찬영, 황옥 등 考古學者들은 平壤에 있었다고 하였다. 물론 황철산과 황옥같은 이는 湞水가 압록강이었다고 논하였다. 이 때 도유호가 토론한 내용은 앞서의 것과 같았다. 『력사과학』 1961년 5호에 실려 있는 그의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유호박사는 고조선의 국가 형성은 기원전 3세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국가로서의 초기 고조선의 기본 영역은 평남, 황해남북도와 함남 동지이라고 토론하였다. 그는 토광묘는 확고 부동한 고조선의 유물이라고 하면서 토광묘를 중심으로 한 검모 종족의 유물은 당당한 계급사회의 것이다. 고조선의 유물을 청천강 류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그 강이 곧 매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강을 경계로 하여 고조선 유물은 함경도 쪽으로 뻗어 간 것이지 결코 강을 넘지는 않았으며 청천강 이북 룡동 지방에서는 이런 유물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은 고조선의 일부 통치자들은 룡동에서 왔지만 고조선의 발원지는 결코 룡동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결론을 준다고 토론하였다.

그러나 이 토론회의 위원장 직을 맡고 있던 력사연구소 소장 김석형이 遼河 中心說을 主張한 사람들의 見解가 가장 合理的이라고 하였고,²⁹⁾ 또 8월 29일과 9월 2일에 실시된 「고조선의 생산력과 국가형성」이란 토론회에서 문헌사가 李址麟이 古朝鮮의 영역이 압록강 이북으로부터 열하, 내몽고까지 뻗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하였다.³⁰⁾ 따라서 北韓學界는 점점 古朝鮮이 만주 遼河에 있었다는 主張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도유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自己說을 버티어 나아갔다.

『문화유산』 1962년 2호에 실려 있는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에서 주체를 확립한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키자」라는 글과 同誌

29) 同上書 1961년 5호.

30) 『문화유산』 1961년 5호 「학계소식」에 들어 있는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 참조.

5호에 실려 있는 「과학원 창립 이후 고고학과 민속학의 발전」이란 글은 執筆者의 이름이 써어져 있지 않으나 卷頭言 形式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고고학 및 민속학研究所 所長 도유호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前者에서는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자료는 고조선 국가가 기원전 수 세기전에 형성되었고 그 문화는 독창적인 우수한 문화였으며 린점 지역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고고학적 유물로 볼 때, 고조선 시기의 유물에는 강철 제품이 있으며 그 유물 종태(綜態)의 압도적으로 큰 부분은 고조선에 고유한 것이었다. 좁은 낫단검과 낫창끝, 잔줄 무늬 거울 및 화분형 토기, 일정한 형태의 수레 부속품, 독특한 형태의 방울 등이 바로 고조선에 고유한 유물이다. 고고학적 조사의 결과로 볼 때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의 영향이 소련의 연해주와 서부 일본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상당한 정도로 미쳤음을 잘 알 수 있다. 중국 동북 지방의 동부도 그 영향 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썼다. 여기서는 古朝鮮의 中心地가 平壤에 있었다는 것을 露骨의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의 引用文 마지막 部分에서 중국 동북 지방의 동부도 고조선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쓰고 있음을 보아 간접적이나마 古朝鮮이 北韓에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또 後者에서는

(上略) 그리하여 대규모로 발굴한 여러 원시 유적에서 나온 자료를 통하여 우리 나라 원시 유적의 문화 종태와 그 분포 정형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일대에서 발견된 자료를 통하여 종태에 알려진 우리 나라 고대 무덤 형식 외에 토광 무덤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下略)

고 쓰고 있어 토광무덤이 남아 있는 地域으로서도 古朝鮮이 北韓에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였다. 도유호는 또다시 『문화유산』 등에 논문을 써서 자기의 주장을 펴 나아갔다. 우선 『문화유산』 1962년 3호에 「신천 명사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독널에 관하여」란 논문을 썼다. 신천은 黃海南道에 속해 있고, 독널이란 甕棺墓를 가리킨다. 신천 명사리에서 나온 독널은 죽은 아이를 넣은 무덤이었다. 이 논문에서 도유호는

명사리의 출토품은 불립없이 고조선 유물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미승리적인 전통이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중국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이는 고조선의 역사를 밝히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다. 미승리란 平安北道 義州郡에 있고 화분형 토기가出土된 곳이다. 그러니까 도유호는 古朝鮮이 平壤에 세워져 있었으나 中國文化의 영향이 적었던 나라임을 독널로서도 알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셈이었다.

그의 주장은 매우 강하였다. 위의 논문에 들어있는 다음의 글로서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고조선을 논하는 마당에서 먼저 문제로 되는 고고학적 자료는 바로 고조선 유물이다. 그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참고적인 것은 없어도 별 탈이 없으나 이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없으면 전연 문제가 서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유물이 전연 보이지 않는 고장에서 중국 갈래의 유물을 들고서 여기가 고조선 자리라고 하여서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다. 고조선 역사를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밖에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러한 무모한 짓은 할 수 없는 것이다. …(中略) 그런데 가놓고 말해서 암만 문헌 사료를 다루어 보았대야 주관적인 독단을 좀 삼간다면 서기 전 8세기의 료동·료서 지방에 우리 역사와 관계있던 있던 간에 도대체 고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국가(탐스주의적 의미에서의 국가)가 있는 흔적을 찾아낼 도리는 별로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고조선 영역이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온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하는 동무는 물론 악랑군 치지의 위치도 료동에 찾아야 한다. 그런데 누가 암만 무어라고 하던 간에 악랑군 치지는 처음부터 평양에 있었다. 고고학도로서 다소라도 고대에 손을 좀 대여본 사람은 이를 부정할 도리가 없다. 동평양 탁랑리의 토성이 문제의 치지에 해당하는 곳을 부정하는 고고학도는 지금에 와서는 별로 없다.

고 하였다.

이어 도유호는 『문화유산』 1962년 4호에 「진번과 옥저성의 위치—고조선 영역 문제와 관련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韓百謙의 『東國地理志』, 李瀾의 『星湖僿說類選』, 安鼎福의 『東史綱目』, 丁若鏞의 『我邦疆域考』 등의 책을 통해 살폈다. 진번은 韓百謙의 설에 따라 江原道 春川 以北, 殷

山~咸川 이남, 동해안以西의 지대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옥저성은 豆滿江 유역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結論 부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필자는 지금에 와서는 고조선 건성기의 북쪽 한계가 서북에서는 청천강에 있었으며 동북에서는 두만강 이북에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남쪽 한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추정으로 한강 중류를 동서로 통과하는 선을 계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下略)

고 하였다. 또『문화유산』1962년 5호에 「왕검성의 위치」를 발표하였다. 논문 첫 머리에서,

위서 조선의 서울 왕검성(왕험성)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선의 고대사를 전공하는 분으로서 왕검성이 룡동에 있었다고 새삼스럽게 또 다시 주장하는 동지가 있다.

필자는 고조선에 관한 역사지리적 고찰을 시험한 몇개의 졸문에서 왕검성이 평양에 있었으며 평양에서도 특히는 그 남구역 쪽에 있었다고 논한 바 있으나 그 논거를 자세히 들 필요는 별로 느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왕검성 재료동설》이 또 다시 시끄럽게 제기되는 것만큼 여기서 필자의 논거를 피력하려고 한다. …(下略)

고 하였고, 논문 마지막 部分에서는

고조선 국가는 어데서, 언제, 어떻게 하여서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데서>다. 그 <어데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얻지 못하면 나머지 해답은 전연 불가능한 것이다. 룡서·료동 지방에서 찾아낸 소위 고조선 역사라는 것은 암만 묘한 문구로 꾸며대었대야 결국은 중국 역사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종류의 고조선사는 우리 나라의 역사로 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遼西, 遼東 地方에 古朝鮮이 있었다는 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한편 『문화유산』1962년 6호에 「예맥조선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진번과 옥저성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논

문이었다. 요컨대 예맥조선은 南쪽으로 강원도 남부에서 北쪽으로 소련의 沿海州, 中國의 東北地方의 一部를 말하나 中國 사람들이 주로 문제삼는 예맥조선은 진변地方, 즉 咸鏡道 方面 및 그 以北地域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古朝鮮의 領域 문제를 놓고 遼西·遼東說을 주장하는 文獻學者와 平壤中心說을 주장하는 考古學者 사이에 날카로운 對立을 보이자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는 「고조선 력역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또다시 열게 되었다. 그것은 1962년 10월 25일, 12월 17일, 1963년 2월 14일 3회에 걸쳐 열었다. 역사연구소 소장 김석형을 비롯하여 역사연구소 고대사연구실장 리지린, 중세사연구실장이요, 김일성 종합대학 력사학부 조선사 강좌장 박시형, 고대사연구실 리상호, 중앙당학교 조선사 강좌장 립건상, 그리고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소장 도유호가 참가하여 토론회를 벌였다. 도유호의 주장은 지금까지 발표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³¹⁾

그로부터 얼마 뒤 『고조선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刊行되었다. 여기에는 7개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김석형의 「고조선의 연혁과 그 중심지들에 대하여」, 황철산의 「고조선의 위치와 종족에 대하여」, 정찬영의 「고조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도유호의 「우리 나라 최초 국가 형성과 과정에 관한 연구」, 립건상의 「고조선 위치에 대한 고찰」, 리지린의 「고조선의 위치」, 리상호의 「단군 건국 신화에 대하여」 등이 들어 있다.³²⁾

그러나 위의 토론회로서 北韓學界는 古朝鮮의 位置와 領域을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 文獻學者의 主張을 받아들였던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친 직후 리상호가 『력사과학』 1963년 2호와 3호에 「고조선 중심을 평양으로 보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평양으로 보는 견해는 고조선을 력사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던가, 고찰하지 않으려는

31) 『력사과학』 1963년 2호에 실려 있는 「학계소식」.

32) 同上 3호에 실려 있는 「근간도서안내」.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무렵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라는 책이 刊行되었다. 『력사과학』 1963년 5호에서는 즉각 이 책의 서평을 게재하여,

(上略) 더우기 이 저서는 그러한 광범한 사료들을 맑스-레닌주의 역사관의 밑
 장에서 종합, 정리하고 조선 고대사에 관한 자기의 새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서
 조선 고대사 발전에서의 하나의 이정표로 된다. 즉, 이 저서는 그 자체가 허다한
 새롭고 긍정적인 연구 성과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함으로써 광범한 토론을 위한 전제 조건을 조성하였고 이로써 장차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를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지어 준 점에서도
 획기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 하여, 높이 칭찬하는 론조로 일관되어 있다.

그 결과 고조선이 平壤에 있었다는 도유호의 주장은 學界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다음 章에서 설명하려는 바와 같이 그의 著書 『조
 선 원시 고고학』 마저 批判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후 古朝鮮에 대한 北韓學界의 태도는 뚜렷하였다. 다시 말하면 古
 朝鮮에 대한 설명은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만주가 中心地라 하였다. 이
 틀때면, 『력사사전』에 收錄되어 있는 「고조선」에 대한 項目을 보면,

고조선은 기원전 8~7세기 경에 遼河 流域으로부터 조선반도 서북에 이르는 지
 역에 걸쳐 강력한 노예소유자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下略)³³⁾

고 하였고, 또 『력사과학』 1977년 1호에 실려 있는 박진옥이란 이의 「서
 북조선고대유적의 성격」이란 논문에서,

고조선문제 해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그 이른 시기의 문화
 내용을 밝힌 것이다. 발굴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에 서북조
 선에서 遼동지방에 걸치는 지역 특히 遼河流域과 遼동반도에서 많이 드러난 비파
 형단검 관계유적이 다름아닌 고조선의 이른시기의 유적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그
 에 기초하여 고조선은 기원전 8~7세기에는 이미 국가(노예소유자사회)를 이루
 고 있었고 고조선의 이른시기의 영역은 비파형단검이 나온 서북조선으로부터 遼

33) 卷 1(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1) 所收.

동지방에 걸치는 지역이었음을 논증하였다.

고 쓰여 있다. 結局 古朝鮮에 대한 도유호의 見解는 北韓學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Ⅳ. 『조선 원시 고고학』의 刊行과 이에 대한 批判

도유호는 1960년 8월 『조선 원시 고고학』이란 책을 刊行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原始 考古學을 처음으로 體系化한 것이었다. 이미 發刊된 발굴보고서와 고고학 자료집, 그리고 발표되지 않았던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저술한 것이었다. 책의 分量은 247面に 달하였고, 108개의 삽도가 들어 있다. 內容은 序論,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나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刊行된 2~3년 뒤에 이르러 비로소 屈浦 舊石器유적을 발굴하고 조사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 책에는 구석기 시대에 관한 것이 들어 있지 않다.

이 책의 刊行은 考古學界의 劃期的인 일이었다. 櫛文土器 유적을 新石器時代로, 巨石文化 관계 유적을 靑銅器時代로, 압록강, 두만강 流域의 유적을 初期 鐵器時代로 規定하는 등 처음으로 試圖한 것이 많았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유적들의 相互관계와 아울러 共通點과 差異點을 밝혔으며, 주민의 起源, 種族의 구성까지 대담하게 거론하였다. 그러니까 도유호는 유물·유적에 대한 編年을 시도함과 동시에 유물·유적을 남긴 사람들까지 살폈던 것이었다.

또 既往에 日人 考古學者들이 主張한 說을 粉碎하고 쉬운 한국어로 考古學系統의 術語를 만들어 使用하는 등 그의 功은 컸다. 그러기 때문에 책이 刊行되자 『문화유산』 1960년 2호에서는 「서적안내」라 하여,

(上略) 이 책은 우리 나라 원시 사회의 유물들을 종합하여 청동기 시대의 유적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밝혔는 바 일제 학자들의 소위 《금석 병용기》설이 무근거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견된 거

의 모든 원시 시대 유적·유물들이 망라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원시 고고학을 연구하려고 하는 동지들에게 좋은 참고서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학적 내용을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일반 지식인들이 우리 나라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좋은 안내자로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였고, 同誌 1960년 4호에 실려 있는 「해방후 조선 고고학이 걸어 온 길」에서는,

(上略) 특히 그것은 해방후 15년간 집적한 새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원시 시대 유적을 개괄 서술한 《조선 원시 고고학》에서 단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인 학자들은 전혀 모르던 새로운 사실들에 근거하여 그들의 외곡된 이론을 전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조선 원시 고고학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지금 작성 중에 있는 조선 고고학 지도와 더불어 해방후 우리 고고학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한 모습, 즉 인제는 튼튼한 과학적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라고 쓰고 있다.

이 책과 『지탐리 원시유적발굴보고』, 『궁산 원시유적발굴보고』 3卷으로 도유호는 1961년 4월 國家博士學位를 取得하였는데,³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北韓의 考古學을 學問의으로 體系化하는데 至大한 功을 남겼던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가學位를 받을 무렵에 金錫亨이 『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과 「兩班論」으로,³⁵⁾ 朴時亨이 『朝鮮土地制度史』로 역시 國家博士學位를 받았다.³⁶⁾ 도유호와 더불어 이들은 北韓의 代表的인 學者였기 때문에學位를 받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앞의 章에서 본 바와 같이, 도유호는 유물과 유적으로 보아 古朝鮮의 中心地가 平壤이었다는 說을 堅持하였고 이에 대해 文獻史家들이 만주 遼河, 遼東에 있었다는 說을 내세움으로써 날카로운 對立을 보였다.

34) 『문화유산』 1961년 3호 「학계소식」

35) 『력사과학』 1961년 3호 「학계소식」.

36) 拙稿, 「北韓의 歷史學」, 『東亞研究』 16輯(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88) 참조.

그러나 結局엔 北韓學界가 文獻史家들의 主張에 기울어짐으로써 도유호의 立場은 매우 難處하게 되었다. 그것은 1963년 봄의 일이었다.

그러자 즉각 그의 저서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력사과학』 1963년 2호 「서평 및 서적해제」欄에 평양사범대학 조선사 교원 김유방이 쓴 「도유호 저 《조선 원시 고고학》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란 제목은 그 代表的인 것이었다.

우선 巨石文化가 한 地域에서 일어나 세계 各地에 퍼졌다는 주장에 대해 批判하였다. 특히, 애굽(埃及)에서 일어나 東南亞細亞, 中國을 거쳐 조선에 到來했다는 主張이 그릇된 것이라 하고 도유호를 범애굽주의자(汎埃及主義者)로 몰아 부쳤다. 한편 도유호의 主張이 옳다고 한다면, 東南亞細亞, 中國, 조선에서 나온 유물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한 기초 위에서 과연 전파되었다고 논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논증이 없으면 독단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김유방은 도유호의 전파설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었다. 다음과 같은 비판으로서도 그것을 살필 수 있다.

인류는 구석기 말기부터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한 곳에 정착하고 인종을 형성한다. 그 이후는 인종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각각 독자적으로 문화를 창조하였다.

독자적으로 창조하였으나 그러나 유사한 문화 또는 동일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즉 남「아메리카」의 사람과 조선 사람이 호상 관계가 없었으나 모두 석기부터 시작해서 금속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즉 남「아메리카」와 조선에서 동일한(또는 유사한) 문화적 발전 형태를 취한 것은 「단원적」인 문화 기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인 현상인 것이다. 멀리 떨어진 각 지역에서 동일한(또는 유사한) 문화적 발전 면모를 나타내는 것은 범애굽주의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화를 비롯한 상부 구조는 토대에 의하여 규정되는 까닭이다. 즉 상부 구조는 토대 위에서 자라나며 토대를 반영하며 토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 따라서 각 인종들이 호상 관계가 없어도 토대가 동일한 때는 동일한 문화, 상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한 곳에서 발생하여 세계 각처에 퍼졌다는 견해는 사물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내적 요인에서 찾지 아니하고 외부의 영향에서 찾은 것이다. 즉 외인론(外因論)이다. 문화발생의 단원론은 한 종족의 선천적인 문화 우위론(文化優位論)과 나아가서는 이로부터 《고동 인종》과 《열등 인종》을 구분하려는 자들의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세계는 자고 이래로 《열등 인종》과 《고동 인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전자는 문명에 도달할 능력이 없고 후자는 문명의 담당자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中略) 좌우간 도유호 동지가 《범애 급주의》나 《문화의 단원론》에 찬동하는 것은 필자로서는 리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기초적인 唯物史觀의 이론으로 도유호의 문화 傳播說을 맹렬히 매도하였다.

또 신석기시대의 문화에 대한 도유호의 주장을 같은 方法으로 論하였으니, 즉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저자는 우리의 신석기 시대의 문화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았다. 즉 고고학적 성과가 우리에게 가장 오랜 문화로 제공하고 있는 서북 및 동북 조선의 신석기 시대의 빗살 무늬 그릇 등을 불가, 오가강 류역의 보조개 빗살 무늬 그릇 등에 근본 시원을 두었다고 지적하고 그 중 궁산(弓山), 지담리(智塔里)의 신석기 문화는 우랄을 거쳐 에니세이, 바이칼 저대에 미친 이 문화가 우랄 갈래의 종족과의 접촉이 많은 알타이족이 우리 땅에 와서 산 그 사이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동상서 101 페이지)고 하였으며 동북 조선의 신석기 시대 문화는 우랄에서 지방에서부터 에니세이, 바이칼 그리고 쉰비리를 지나 역시 알타이족이 전래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中略) 가령 서북 조선이 우랄문화를 계승하였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의 대비와 론증이 있어야 한다. …(下略)

고 하였다. 그리고 結論 部分에서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원시 문화도 아무리 강한 대륙으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자체의 내적 동인(動因)에 의하여 그 합법칙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中略) 물론 《일반 고고학》이라 하면 원시 문화의 교류, 문화의 세계적 시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러나 《조선 원시 고고학》에서는 문화 교류를 필요 이상 많이 서술할 것은 없다고 인정한다. …(中略) 우리는 원시 문화의 보편성만 강조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고유한 특수성을 도의시하여서는 안된

다. 우리 나라 땅에서 발굴된 유물을 그 형태 상 공통성에 의하여 린근제국의 문화에 포함시켜 쉽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들과의 차이점과 독창성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오직 이 차이를 천명함으로써만 조선 원시 문화의 특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下略)

結局, 도유호가 주장하는 문화 전파설은 틀린 것이고, 조선의 고유한 특수성만을 찾는 것이 조선 원시 고고학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도유호와 같은 넓은 관점에서 유물·유적을 해석하려는 방법은 北韓 考古學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유호에 대한 김유방의 批判은 北韓의 公式인 견해로 굳히게 되었다. 新石器時代의 文化는 外部의 影響으로서가 아니라 舊石器時代부터 살기 시작한 住民들에 依해 獨自的으로 창조되었으며, 靑銅器時代의 文化도 역시 獨自的으로 發生하였다는 것이었다. 學問하는 姿勢는 움츠러들고 편협한 國粹主義만이 기지개를 펴게 되었다. 그 한 두가지 예를 든다면, 우선 『력사과학』 1977년 2호에 실린 장우진의 「원시문화에 반영된 조선사람의 기원의 단일성」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60~40 만년을 헤아리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자취가 드러났다. 그것은 1966~1968년에 발굴·연구된 상원군 검은모루 구석기시대 전기의 유적을 들어 말할 수 있다. 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우리 나라 원시사회의 첫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조선사람의 기원문제가 이 땅에서 진행된 인간기원과 직접적인 연관속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中略) 그러나 우리 나라의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계보의 종족들에 의하여 창조된 까닭에 문화갖춤새 전반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일관하게 흐르는 고유한 문화적 공통성은 뚜렷이 인정된다. …(下略)

고 있고, 또 『력사과학』 1978년 4호에 실린 「조선사람의 기원에 관한 인류학적연구」에 대한 「책 소개」에서,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 형성된 조선사람은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세대를 줄기차게 이어오면서 한강토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슬기롭고 지혜로운 단일민족이다. …(下略)

라고 쓰고 있다.

그러므로 1963년 봄 『조선 원시 고고학』에 대한 批判이 나온 이후 도유호의 주장은 뒷전에 물러섰을뿐만 아니라, 國粹主義의 發想이 北韓學界를 支配하게 되었다.

前述한 바대로 도유호는 1964년에 屈浦 舊石器 유적에 대한 글을 『고고민속』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고고민속』 1965년 3호에 「평천리에서 나온 고구려 부처에 대하여」라는 글을 쓴 뒤로 北韓의 考古學界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사실 위의 논문만 해도 考古學 관계가 아니라 美術史에 속하는 글이었다.

V. 結 語

以上으로 北韓 考古學界에 있어서 도유호가 이룩한 研究成果와 그 性向 등을 살펴 보았다. 확실히 그는 수많은 發掘을 통해 조선 考古學을 學問的으로 體系化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46년 4월 南勞黨의 巨物 李康國을 保證人으로 하여 共產黨에 들어갔던 것인데 1953년 7월 李康國이 南勞黨의 幹部들과 함께 反黨分子로 몰려 숙청되었던 것이므로,³⁷⁾ 사실을 말하면 도유호의 처지는 매우 不利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考古學界에서 차지하는 地位때문에 健在하여 研究活動을 계속하였다.

도유호는 中國, 獨逸, 오스트리아에 유학하여 공부하였고 귀국하여서는 다시 日本에 건너가 研究生活을 하는 등 日帝時代 한국인으로서의 보기 드물게 幅넓은 學究生活을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발굴하면서도 國際的인 眼目을 갖고 文化의 傳播經路를 밝히고 編年을 試圖하였으며, 유물·유적을 남긴 種族까지 살피려고 하였다.

그러나 古朝鮮의 位置와 領域 문제로 文獻史家들과 의견의 충돌을 일으

37)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김일성』(청계연구소, 1989), p. 115; 김남식 지음. 『南勞黨研究』(돌베개, 1984), pp. 480~505, pp. 583~599.

김으로써 1963년 봄부터 北韓學界로부터 批判을 받고 地位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北韓學界는 偏狹한 國粹主義 傾向이 支配하여 도유호와 같은 見識은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 1977년 12월 社會科學院 考古學 研究所에서 『조선고고학개요』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1960년 8월에 刊行된 도유호의 『조선 원시 고고학』에 대한 言及이 別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序文에서,

(上略) 또한 이 책의 집필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의 유구성과 우수성, 그런면한 계승성과 단일성을 밝히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고 쓸 정도로 생각이 움츠러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유호가 北韓學界에서 이름을 날렸던 것은 考古學때문이었는데 그 考古學으로 말미암아 地位가 위태롭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確實히 悲劇이었다.